

바.	자기공명영상(MRI)촬영료 및 초음파 검사료 지급기준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자기공명영상(MRI) 촬영료]

- ① MRI 촬영료는 공무상 요양기간(요양기간 연장 포함) 중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승인부위 별로 5회 이내에서 인정한다. 다만, 공무상 승인상병이 염좌인 경우에는 승인부위별로 1회를 인정한다.
 - 실제요양기간 2년¹⁾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인정한다.
- ② 지급액은 1회 960,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.

[초음파 검사료]

- ① 초음파 검사는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원할 때마다 승인 부위 별로 5회까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공무상 요양기간(요양기간 연장 포함) 중 승인부위별로 총 10회 이내에서 인정한다.
 -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5회까지 인정한다.
- ② 1회 검사 시 마다 300,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.

1) 2018. 3.20.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상공무원에 대한 요양비용 확대를 위하여 실제 요양기간(제22조제2항)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나, 공상공무원에 대한 MRI 촬영비용 보상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는 횟수 산정기간을 조정하지 않고 실제 요양기간 2년으로 존치시킨 것으로 여겨짐